

# 함평엑스포공원 자연생태관, '빛의 우주정원' 새 단장

### 은하수 걷는 듯 환상의 우주 체험에 관광객 발길

전남 함평군이 국향대전의 흥행 열기를 겨울까지 이어가기 위해 자연생태관을 '빛의 우주정원'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겨울 관광객들에게 한층 더 압도적인 몰입 경험을 선사한다.

앞서 자연생태공원은 올해 대한민국 국향대전의 주제인 '마법의 국향랜드'에 맞춰 토성 조형물과 12개의 혜성, 그리고 다양한 야생화와 가을 들꽃을 더해 '마법의 우주정원'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힘입어 함평군은 토성과 혜성 조형물에 은은한 조명을 새롭게 입혀,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빛의 우주정원'으로 재탄생시켰다.

길을 따라 빛으로 물든 나무와 꽃들 사

이에는 작은 별처럼 촘촘한 조명이 반짝이며, 천장에 반사되는 불빛은 마치 은하수를 따라 걷는 듯한 신비로운 감각을 만들어낸다. 여기에 은은하게 흐르는 배경음악까지 어우러져 한층 더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전시관 중앙의 폭포에서는 물줄기를 타고 흐르는 빛과 함께 강렬한 레이저 라이트가 공간을 가르며 시선을 사로잡는다. 레이저는 은은한 조명과 대비를 이루며 빅뱅처럼 퍼지는 빛의 궤적을 연출해 관람객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자연생태관 전시는 단순히 불빛을 더한 전시를 넘어, 빛과 음악, 그리고 동선 전체가 하나의 이야



기로 흐르는 몰입형 우주 체험 공간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방문하신 분들 모두가 잠시 일상을 벗어나, 신비로운 별빛 정원을 거니는 듯한 특별한 겨울의 감동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이번 '빛의 우주정원'은 가족 방

# 강진군, '빈집재생페어' 개최

### 15개소 빈집·유희공간 되살리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강진군이 오는 19일까지 병영면 한 골목길 일원에서 「강진 빈집재생 페어」를 운영한다.

「강진 빈집재생 페어」는 '다시 사는 집, 다시 살아나는 마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버려진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강진군에 맞는 빈집재생 모델을 찾고자 기획됐다.

약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병영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내 빈집과 유희공간 15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정책홍보를 비롯해 모컬콘텐츠를 접목한 문화를 체험하고, 빈집 투어 등을 통해 지역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빈집 및 도시재생사업 등 강진군의 선도적인 정책을 알리는 '정책홍보관' 운영 ▲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 빈집재생 모델을 찾는 '빈집재생 현장포럼' ▲빈집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빈집 도슨트투어' ▲50만 구독자를 보유한 '오지는오진다' 채널 운영자가 직접 진행하는 '빈집 인플루언서 상담회' ▲빈집을 리모델링한 공간을 활용한 위케이션 및 작가 레지던스 등 살아보기 프로그램 등이 있다.

지난 3일에 개최된 '빈집재생 현장포럼'은 전남도 내 지자체 관계자 및 주민 8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으며, '빈집 도슨트투어'도 현재까지 70여 명이 다녀가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빈집 위케이션은 서울 소재 스타트업과 연계해 추진되었고,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동화, 웹툰, 사진 등 다양한 작가들과 함께 12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참여한 작가들을 홍보하는 빈집 전시회도 함께 진행된다.

「강진 빈집재생 페어」 빈집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경훈 웹툰작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강진을 알게 되었고, 단순히 빈집을 머무는 것이 아닌 마을을 알아가며 리포레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다시 꼭 강진을 찾아갈 예정이며, 기회가 된다면 병영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 빈집재생 페어」 기간 중 빈집 도슨트투어 등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을 통한 예약제로 운영되며, 문의는 강진군 도시재생지원센터 (061-430-5760)로 하면 된다.

강진/손경실 기자

진도군은 엘피지(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거한 보일러를 정비해 난방시설이 필요한 취약 가구에 무상으로 설치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임회면 봉상마을에서 진행된 엘피지(LPG) 배관망 구축 공사와 연계해 추진했으며, 공사 과정에서 철거한 기름보일러 중 사용기간이 짧고 상태가 양호한 보일러를 정비해 난방시설이 시급히 필요한 가구에 재설치하는 방식으

## 진도군, '철거 보일러 재활용'... 난방 사각지대 해소한다

### 엘피지 배관망 구축사업과 연계, '보일러 재설치 지원' 전격 추진

로 운영됐다.

진도군의 이번 지원은 난방비 걱정이 큰 취약계층의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작은 지원이지만 난방이 꼭 필요한 가정에 따뜻한 겨울을 선물할 수 있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에너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평등한 에너지 복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앞으로도 엘피지(LPG) 배관망 구축사업과 연계해 재사용이 가능한 철거 보일러를 정비하고, 난방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진도/오재명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카메라 뉴스



### 화순읍, 겨울철 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실시

화순읍행정복지센터(읍장 조영일)는 직원 등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순소방서와 겨울철 화재 발생을 대비해 '2025년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을 지난 4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행정복지센터 내 화재 발생에 따른 직원과 민원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인명피해 예방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소화 훈련, 피난 훈련 등 실질적인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었다.

소방훈련 후 소방서 교관의 소화기 사용법과 행정복지센터 내 소화전 위치 및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민원인의 안전한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화재가 발생할 때 연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화순/김중환 기자



### 구례군 '제4회 소상공인의 날' 성료

전남 구례군은 지난 12월 5일 구례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제4회 소상공인의 날 기념 행사를 성대히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4회를 맞는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에는 지역 소상공인 대표, 군 관계자, 지역 의회, 유관 기관 및 단체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카드 수수료 지원, 이차보전, 전통시장 기반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 담양군,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담양군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월산면 봉명경로당과 대전면 서부·동부경로당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6년 사업 대상지 선정 사유와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추진 절차, 주민 협조 사항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현황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는 국가사업으로, 경제 분절 해소와 마을 안길 확보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보여주시는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